

‘수도권 증원’ 경찰 조직개편…지방은 ‘치안 공백’

SOCIETY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정부, 인력 재조정…광주청 4명·전남청 86명 감축

“지구대 정원比 인력난 호소…지역 특성 반영해야”

정부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찰 인력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경찰청 인력 감소에 따른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비수도권 경찰력을 줄이고 수도권 경찰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에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사·도청 간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경찰청 주관 조직 진단을 실시, 전국 사·도 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별 업무량 평가를 바

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지역 간 대규모 인력 재배치에 나선 것은 약 10년 만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피싱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총 범죄 건수 △112 출동 건수 △그 외 부서별 사건 접수 건수 등 통계를 통해 업무량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 조직 개편안에는 전국 기동순찰대 일부 인력을 일부 줄이는 대신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감축 인원은 치안 수요가 몰리는 경찰

청이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싱사기 전담 인력 등 수사 분야, 현장 응급인원 대응, 1인당 112 신고 처리 건수가 많은 지구대 배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은 하반기 인사이동을 통해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11개 경찰청의 경찰 인력 총 928명을 줄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4명, 전남경찰청은 86명이 감축될 것으로 산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221명), 대구(145명), 전북(99명), 울산(95명), 경북(94명) 등도 감소한다. 반면 경기남부(299명), 인천(140명), 경기북부(64명), 서울(24명) 등 수도권의 경찰 인력은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도권 경

찰 집중’으로 지역 일선 경찰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치안 공백 등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의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는 순찰 등 치안 유지 필수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구대와 파출소의 정원대비 현원은 -34명(지구대 -25명·파출소 -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명(지구대 +8명·파출소 -17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남의 지구대와 파출소의 정원대비 현원은 -64명으로, 지구대는 32명 많았지만 파출소는 96명이 부족했다. 2023년 -57명(지구대 +21명·파출소 -78명)보다 인력 공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전남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이 늘어나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북부보다 경찰 1인당 관할 인구수가 적지만 섬이 많고 농어촌 지역에 치안인력이 광범위하게 분포되는 특수성을 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농어촌지역인 전남은 이동거리가 멀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인구수에 따라 경력 배치도 필요하지만 조직 통·폐합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남경찰청도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를 운영하고 있다. 190개 지구대·파출소를 92개소로 통합 운영해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식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51	달름 22:04
☀️	예전 19:23	달름 10:56



남구, 악취 발생 ‘SRF 청정빛고을’ 고발

오염도 법적 기준치 초과

광주 남구는 13일 “효천지구 일대에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침해한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 업체인 청정빛고을㈜을 남부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SRF를 가동하는 청정빛고을㈜은 지난 6월 12~13일과 지난 7일 이틀간 오염도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측정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남구의 의뢰로 시보건환경연

구원이 SRF 부지 경계와 배출구 2곳에서 채취한 결과 시료에서 악취 오염도가 법적 허용 기준치(500)를 초과한 669로 측정됐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는 누구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지만, 악취·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 생활 환경에 위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아울러 남구는 오는 22일까지 청정빛고을 측의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행정 처분에 나선다. 임영진 기자 looks@



부채에 수놓은 캘리그래피 작품 13일 오후 광주 동구청 1층 로비에서 ‘북날의 붓 바람(風)’전을 찾은 시민들이 동구평생학습관 회원들이 다양한 부채에 수놓은 캘리그래피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생활비 마련 목적…차탈이 30대 영장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광주 북구 용봉동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하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몰래해 차량 문을 열어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수 동종 범죄가 있고, 누범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 북구청 사거리서 5중 추돌사고

광주 도심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중흥동 북구청사 앞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 시내버스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당시 한 승용차와 택시가 차선 변경 중 부딪치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여파로

정차 중인 승용차, 택시, 버스까지 추가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난 택시는 사거리 가로수와 충돌한 뒤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서구장애인복지관서 상급자 ‘갑질·괴롭힘’

관장·사무국장, 직원들에 당원 모집·사적 업무 동원 무더기 퇴사…구 “엄중 조치…재발 방지 제도 마련”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제기된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7월 A서구장애인복지관 관장과 B사무국장에 대한 투서 접수됐다.

투서에는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강요, 상급자 지인의 선거사무실 행사에 직원 강제 동원, 특정 금융기관 조합원 가입 종용, 조직 내 갑질과 인사 갈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 청탁에 의한 일부 채용 청탁 등은 진술이나 자료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투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신빙성 있는 제보나 증거가 확보되면 재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종 복지관에 대해 ‘서구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계약서 6조’(정지활동 금지) 위반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행정 처분)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관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해지와 향후 서구 민간위탁사업 참여 불가 등을 취한다.

A복지관장과 B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근거해 해당 복지법인에 정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다. B사무국장의 경우 직원들과 업무상 완전 분리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감독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도박하려고 귀금속 훔친 10대

만년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체포.

13일 광주 광산경찰은 귀금속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절도)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

A군은 지난 12일 오후 4시24분 광주 광산구 한 금방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업주를 속인 뒤 이를 가로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금목걸이를 가로챈 도망갔다’는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 추적에 나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군이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로 이동한 뒤 귀금속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

조사 결과 A군은 온라인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인계. 임정호 기자 jih4415@

동구 도시재생뉴딜 잔결음…“원도심 활력”



광주 동구에 계림동 청소년 중심 문화공간 조성과 골목길 정비사업 등 도시 재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추진 중인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경양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주민 화합과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중 ‘경양마을 상생플러스센터 리모델링사업 건축공사’를 통해 마련되

는 ‘창작마루’(가칭)는 동구 계림동 563-2에 사업비 55억57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대지면적 729㎡, 건축면적 298.28㎡, 연면적 999.67㎡ 건물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동구는 올해 2~5월 별관동 해체공사를 완료했으며 9월 착공,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1층은 청소년자율공간, 창작공간, 2

55억 투입 경양마을 창작마루 조성…내년 3월 준공
청소년자율공간 등 마련…경양마을길·골목 정비도

층은 사무실, 탕비실 등이 들어선다. 3~4층은 댄스실, 탈의실, 합주실, 악기보관실, 상담실, 녹음실 등이 조성된다. 지하 1층은 기계실, 창고를 마련했다.

음악 특화시설을 토대로 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에서 음악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상상력을 키우고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계림동 289-2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 경양마을길·골목길 정비공사’에는 총사업비 11억9814만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차로 폭을 5m에서 3.5m로 축소하고 보도 확장, 주차공간 조성(32대), 맨홀 및 화단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양마을길(계림동 579-9~계림동 576-16, 길이 292m, 폭 20m) 일대와 골목길(1303m)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행환경 개선, 녹지 확보

를 위해 기획됐다.

동구는 2022년 9월 실시계획용역에 착수한 이후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6월 실시계획을 완료했다.

지난 6~7월 동부경찰, 광주종합건설본부와 사업방향을 공유했으며 9월 착공,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청소년이 음악으로 서로 교류하며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될 것이다”며 “깨끗한 골목길 조성과 함께 나누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로 ‘이웃과 함께하는 밝은 동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